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⑥

4월 9일  
주제 -선 수행의 바른 길

# 내가 부처인데 밖에서 뭘 찾는가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자정성(本自淸淨)하니 단용차심(但用此心)하면 지료성불(直了成佛)하리라.

이 한마디 속에 불교의 대의와 선의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리자성은 깨달음의 성품자리, 참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참마음은 도를 두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청정합니다. 모든 번뇌망상과 자아의식이 텅 비어 버린 그러한 성품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텅 비었지만 일체 공능이 원만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텅 비었다고 하는 부정 가운데 일체 공능이 구축되어 있는, 전체를 살려내는 금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참마음으로 살게 되면 곧바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 '단용차심 지료성불'입니다. 먼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깨달음의 삶, 부처의 삶,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인 참마음만 바로 알고 살면 이것이 바로 선의 삶이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불 줄 알고 들을 줄 알면 다 된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작용 속에는 온 우주법계가 총 동원돼서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작용은 온 우주법계가 총 동원되어 연기작용으로 보는 어머니마한 내용입니다.

**법석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그러면 '내가 죽비를 본다'고 생각하면 보는 '나'와 죽비라고 하는 '대상'이 설정되어 주관과 객관이 나뉘고 맙니다. 이 '나' 속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뤄야시 속에 축적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업기운들이 개입이 되어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배척하게 됩니다. 이는 갈등이 되어 수많은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를 통찰해서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 수행의 출발은 괴로움 통찰

나를 잘못 보아 이것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데서 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공(空)이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싹 사라집니다. 수행의 목표는 참마음을 깨닫는 일이지요. 이 참마음을 깨쳐 괴로움을 해결하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의 목표, 삶의 좌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마음을 확실하게 깨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수행의 목표, 삶의 좌표가 확립되지 않으면 열심히 수행할 수 없고 진실 되게 살 수 없으며 꾸준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 수행의 좌표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는 불자들은 강의나 법문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발심이 된 연후에 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야안목과 반야삼매, 반야행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반야안목, 진정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를 배우고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야안목, 즉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는 일입니다. 만약 반야안목을 갖게 되면, 생사에 자유자재하며 가고 머무름에도 자유롭고, 대조화와 절대평안, 참 행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축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절대행화와 대자유를 얻는 해탈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행자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데 있습니다.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처인데 뭘 밖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이 믿음이 서지 않으면 참선 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이 의미 없는 거예요.

일제선사는 "스스로를 믿고 밖으로 찾지 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너의 한 생각 마음위에 청정한 광명, 이것이 네 자신 속의 보신불이요.

너의 한 생각 마음위에 분별없는 광명, 이것이 네 자신 속의 보신불이며, 너의 한 생각 마음위에 차별없는 광명, 이것이 네 자신 속의 화신불이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참마음이 참부처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서야 참선이 됩니다.

홍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탕물에는 맑은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중들 "있어요") 그렇습니다. 맑은 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은 홍탕물이 가라앉은 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홍탕물인 상태에도 있다는 말이예요. 홍탕 같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해도 맑은 물 같은 참마음은 여전한 것입니다.

홍탕물의 비유에서 홍탕물을 떠나 맑은 물이 따로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보고 듣는 이 일상의 마음에 참마음의 묘용이 여여하다는 이 도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 참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반야삼매, 정혜일체, 지관등지가 되도록 화두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번뇌망상입니다. 번뇌망상을 어떻게 비취버릴 것인가.

가. 번뇌망상을 비운다는 것은 선의 삶이 아니라 선수행의 차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수행의 초점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텅 빈 진여, 참마음만 있을 뿐 비울 것도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번뇌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속에 갈려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가 있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잊지도 않은 번뇌망상을 어떻게 해야 비울 수 있을까요? 마치 꿈에서 깨면 꿈의 내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잊지도 않은 번뇌망상을 인정하고 속으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걸 안다면, 분발심을 내야 합니다.

### '나'에 매어 살면 고통 따라

화두만 잘 들면 분별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화두의심에는 분별망상이 붙을 수가 없어요. 마치 불명이 활활 타고 있으면 그 불명이 앞에서는 별이나 나비나 참새나 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의심만 간절하게 일어나면 번뇌망상이 그 순간에 작동을 못합니다. 번뇌망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두의심을 잘 들고 있으면 선정과 지혜가 그 속에 함께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수행입니다. 지혜를 따로 두고 선정을 따로 두는 게 아닙니다. 선정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선정이 있는 것이 화두삼매입니다. 선정과 지혜는 불과 불빛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선정이라면 불빛은 지혜입니다.

셋째는 반야행, 생명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다운 수행은 반야안목, 반야삼매, 반야행, 이 셋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셋이면서 하나로 하나면서 셋입니다. 반야안목을 갖추고 있으면 반야삼매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는 스스로 참생명의 모습으로 반야행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야행의 첫걸음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무아행을 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반드시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있으면 내가 있게 되니까 대립이 생겨 조화가 깨집니다.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됩니다.



**지환 스님은**  
· 1967년 해인사 입산  
· 1969년 범어사에서 권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 1972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범어사, 해인총림, 덕숭총림, 고불총림 운문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정진  
· 생계사 금당선원장 역임 · 현 조계종 기본선원장, 동화사선원장

반야행의 첫걸음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주더라도 상을 내게 됩니다. 나를 비우면 어머니가 자식에 주듯이 내 생명의 자비한 기운으로 주게 돼 있어요. 생명에는 자비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면 통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이 수행공동체, 동체적인 관계가 되어 나와 내 가족은 하나의 삶의 터전에서 조화롭게 머무른바 없이 그저 베풀어야 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그러고 범위를 넓혀 이웃에게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연습을 하다보면 내 마음이 무한히 넓어지고 내 마음이 참마음의 흐름으로 흐르게 되어 행복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수행을 하세요. 사랑은 엄청나게 좋은 수행방법입니다. 사랑을 수행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멋지게 사랑하십시오. 멋진 사랑을 하는 방법은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서 주어야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나를 비우고 오직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참생명은 대활(大活)이며 대환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기쁘고 활기있게 사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활기있게 살면 웬만한 장애물은 극복됩니다. 이것이 참선수행을 할 수 있는 반야행을 두는 기초라 할 것입니다.

정리=백병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공단등 (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황금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 계 에서 .. ← 시 공 까지 ..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 화랑 스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질의 법사: 강설 스님**  
· 1993년 송담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 199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 해인총림 등재방선원서 20여년 참선장진  
· 현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사무처장

**강설 스님** : 대중을 대표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화선이 어렵다고 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스님** : 간화선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익숙해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온 삶을 참 삼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간화선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수행이 다 어렵습니다.

간화선을 할 수 있는 기본본태.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간화선은 어렵게 느껴 집니다.

땅에 비유하자면 척박하고 자갈이 깔려 있는 땅을 파서 돌자갈을 캐내고 땅을 부드럽게 고르고 나서 씨를 뿌려야 하는데 돌자갈과 가시덩굴이 얽혀있는 척박한 땅을 그대로 두고 씨를 뿌리면 씨가 제대로 나지 않고 씨가 난들 제대로 자라지 않듯이 화두공부를 할 바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두공부를 하면 화두공부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생명은 깨침에 있습니다. 깨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받아야 하지요.

화두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안됐는데 화두를 받아서 '이렇듯' 한들 의심이 나지 않고 공부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간화선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실낱 만큼이라도 의심의 뿌리가

났을 때 화두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화두 공부를 할 준비가 됐으면 스승에게 찾아가서 간접한 마음으로 화두를 받으세요. 반드시 스승의 지시대로 공부해 나가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야합니다. 스승의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화두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행 하는 사람이 간화선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기초를 소홀히 한 탓입니다. 기초만 튼튼히 하면 아주 쉬운 수행법입니다. 왜냐하면 간화선은 단순명료하기 때문입니다. 화두의심만 일으키면 되는데, 의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낍니다.

화두의심을 일으키는 순간 번뇌는 범접하지 못합니다. 간화선을 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되어 제대로 공부하면 간화선이 가장 험악한 공부고 가장 쉬운 공부예요.

**강설 스님** : 간화선과 관법(觀法)을 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환 스님** : 병 따라 처방하는 약이 다르듯이 사람 따라 다릅니다. 관법을 먼저 하고 화두공부를 할 사람, 화두 공부와 관법을 병행해도 좋은 사람, 곧바로 화두공부

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의심이 나지도 않는데 '화두를 오래 하라 하다보면 나중에 화두의심이 생길 것'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됩니다.

재가불자 가운데 곧바로 화두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선이 좋고 하니깐, 그리고 참선을 할려면 화두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큰스님한테 가서 화두 타가지고 참선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심이 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참선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不淨觀)을 한다든지 성내는 진심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慈悲觀)을 한다든지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수식관(數息觀)을 한다든지 기초단계로 관법을 먼저 두고 화두공부를 해도 좋다고 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관법은 반야관법이 있습니다.

반야관법과 간화선은 한 흐름이예요. 그래서 화두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법입니다. 이 반야관법도 반야관법을 먼저하고 화

두공부를 해야 할 사람 반야관법과 화두를 병행해서 해야 할 사람, 사람따라 다릅니다.

**설동근 거사** : 아람경에는 육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 해탈열반 하려면 아홉까지 순서로 입각한 수행인 구차제정(색계 4품, 4無色定, 滅盡定 또는 想受滅定을 뒤야 한다고 합니다. 간화선의 선 수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환 스님** : 우리는 하나의 세계 속에 중생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에서 세계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세계가 있고 고정된 세계 속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중생들이 사는 세계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구차제정이라는 선정을 통해 중생들의 세계는 중생들의 마음에서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니다.

구차제정은 부처님께서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행한 선정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단순한 삼매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은 번뇌가 쉬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마타(止) 다시말해 선정의 측면과, 고요한 마음의 상태로 법을 관할하는 위빠사나(觀), 즉 지혜의 측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마타(止), 선정 속에 위빠사나(觀)와 지혜의 내용이 함께 있고, 위빠사나(觀), 지혜 속에 사마타(止)와 선정의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지관등지(止觀等持), 정혜일체(定慧一體)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원리입니다.

구차제정은 해탈열반에 이르는 아홉단계의 선정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의 멸진정을 통과해야 중생들의 모든 세계가 조각된 유위이며, 연기의 세계라는 연기법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차제정이라는 선정을 통해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달리 말하면 지관(止觀)을 통해 연기법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간화선 수행도 이 수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화두의단이 뭉쳐지면 화두삼매가 되는데 이때는 번뇌가 쉬어, 고요하



**제가 질의사: 설동근 거사**

· 행정학 석사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교육감 역임  
· 현 부산시 교육감, EBS 인터넷 수능 전문위원장

## 의심을 공부의 기초 삼고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 들어야 부정관·자비관·수식관 간화선과 함께해도 좋아



4월9일 범어사에서 열린 여섯번째 설선대법회에서 지환 스님의 간화선과 올바른 수행법에 대한 법문에 귀 기울이며 공감의 박수를 치고 있는 불자들.

고 적정한 상태(止, 定의 측면)에서 화두의심이 뚜렷하게 흐르는 성성합(性, 慧의 측면)이 있게 됩니다. 즉, 적적성성(寂寂惺惺)이요 성성적적(惺惺寂寂)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관등지(止觀等持), 정혜일체(定慧一體)의 수행입니다.

간화선에서도 은산철벽(銀山鐵壁, 멸진정의 상태를 투과해야 화두가 타파되어 확립되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연기실상을 바로 깨쳐서 연기 실상의 흐름, 즉 진여대용(眞如大用)의 자유자재한 깨달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설동근 거사** : 대혜 종고스님은 화두 참구의 목적에 관해서 "만약 곧바로 계합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단박 부수어 버려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생사에 도달할 수가 있으며 깨달아 들어갔다 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화두 참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 견성의 방편으로서 화두를 제시하는가 궁금합니다.

**지환 스님** : 우리 의식은 동시에 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미운 생각을 하면서 이

쁜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미운 생각을 할 때는 미운 생각만 하게 됩니다.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참나가 바뀌는 것이지,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 생각이 있을 때 다른 생각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화두의심은 궁금한 것을 묻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진리가 도대체 뭐냐, 아니면 달마대사가 왜 동쪽으로 오셨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궁금함과 간절함이 강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집중력을 갖게 해 줍니다.

강력한 집중의 화두의심이 흐르고 있는 화두삼매에는 다른 생각, 망념이 끼어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화두의심이 폭발 못 있으면 분별망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이 약할 때는 망상이 왔다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기쁨을 계속 부여하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망상을 피우면 피울수록 망상이 자라는 것입니다. 화두의심이 이어지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의 세력이 약해지다가 화두의심의 극점에서 미세 망념의 근본뿌리가 공해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 홀연히 마음 꽃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돈오견성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견성의 방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정리=박병명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TwoTwo** www.twotwocom.co.kr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 金剛壯士

- 200여 가지의 출력양식 지원 (축원, 등표, 위패, 봉투, 주원명서 등)
- 나이별 편지 발송 기능을 내장한 익강한 생일관리 기능
- 국내외 모든 우편물 양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 기능
-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등, 연등, 기타행사)
- 단원 사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계관리 기능
- 영가위패를 한번에 입력, 출력, 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
- 그 외 명함관리, 일정관리, 출력관리 기능
- 특정특별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모둠회리 기능
- 휴대용 문자메시지(SMS) 전송가능

저희 투투컴퓨터에서는 사찰신도관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종단관리 프로그램, 납골당관리 프로그램,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 투투컴퓨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투투컴퓨터** 서울 (02)585-1141 부산 (051)505-2434 대구 (053)563-9841 제주 (064)721-2434

## 사찰 연등 및 전선(별양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실황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등 및 초등 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균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